

# 08

## 고상법을 이용한 리튬 티타늄 산화물의 합성 방법

발명자 박 이 현 소속 ITER 한국사업단 시스템기술부 주연구분야 TBM 기술

기술분류 : 핵융합로/원자로 세부 기술 > 증식재

TRL5

확정된 부품/시스템 시제품 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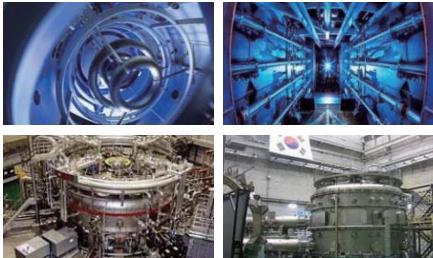
### 기술완성도

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

### 지식재산권 현황

출원 고상법을 이용한 리튬-티타늄 산화물의 합성 방법

10-2015-0052214



### 기술개요

- 본 기술은 핵융합로의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고체형 증식재인 리튬 티타늄 산화물의 합성 방법입니다.

- 본 리튬 티타늄 산화물은 산화리튬과 산화티타늄을 용매를 활용하여 혼합시키고 용매를 분리하여 열처리를 통해 리튬-티타늄 산화물을 합성하며, 알루미늄이나 코발트와 같은 불순물이 없으므로 증식재의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

### 기술개요 대비 개선점

- 상용화된 리튬 티타늄 산화물은 코발트와 같은 장주기 핵종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삼중수소 증식재로 사용 후 재활용하기 어려움
- 이온교환법, 습식법 등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리튬 티타늄 산화물을 합성할 수 있으므로 대량생산에 용이함

**산화리튬과 산화티타늄을 혼합 후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 
리튬-티타늄 산화물 수득**

미세한 입자 크기 제어가 가능하여, 삼중 수소 방출이 용이함

불순물이 없어, 증식재의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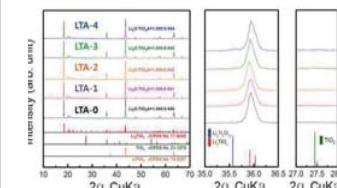


### 구현방법

본 리튬 티타늄 산화물 제조 방법은 아래와 같음

- 산화리튬과 산화티타늄을 용매 내에서 혼합
- 산화리튬 및 산화티타늄을 포함하는 고체상 물질을 용매에서 분리
- 용매와 분리된 고체상 물질을 건조시키고 열처리

### 대표도면 [리튬-티타늄 산화물 샘플의 XRD 그래프]



구분	산화리튬과 산화티타늄의 몰비율	열처리 온도 (단위: °C)	열처리시간 (단위: 시간)
LTA-0	1:0.940		
LTA-1	1:0.941		
LTA-2	1:0.942		
LTA-3	1:0.943	700	12
LTA-4	1:0.944		
LTA-5	1:0.945		

### 관련이슈

- 핵융합로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초고온상태의 수소 핵 간 융합을 인공적으로 발생시켜 높은 에너지를 얻도록 한 장치로, 태양이 연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인공태양으로 불림
-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자원이 풍부한 대용량 발전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핵융합연료 1그램은 석유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며, 육조 반 분량의 버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만으로 한사람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 할 수 있음
-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최종 과학적·기술적 실증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(유럽연합, 일본, 미국, 러시아, 중국, 인도)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진행

### 시장전망/기술동향

- 세계 핵융합 기술 수준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가능성의 기술적 검증 단계에 도달하였고, 최근 EU·미국·일본은 2035년경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「지름길(Fast-track) 계획」을 수립, 추진하고 있음
- 재래식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2030년을 중심으로 핵융합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1.5GWt 핵융합발전소 건설비용을 약 40억 달러로 산정할 때 극동 지역에서만 최소 연간 8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
- 전세계적으로 핵융합 장치시장은 연간 1조~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, 산업/의료용 가속기 시장도 연간 5조 4천억 원 규모로 연간 10% 성장을 보이는 등 주요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



### 상용화 계획

소요기간	24개월	예상비용	5억 원
추기연구 진행현황	대량 합성을 위한 공정 및 합성조건 개발 중	상용화제품	핵융합로 / 원자로

기술사업화팀

김 성 우 Tel: 042-879-5016 E-mail: swkim@nfri.re.kr  
권 순 원 Tel: 042-879-6233 E-mail: kwonsw@nfri.re.kr